

#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정책의 문제점\*

신 정 현

## 1. 철학부재의 교과서 정책

교육에 관한 한,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 지식이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가장 가치로운 지식”이란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든 이 물음에 대답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대답을 찾은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아마 “가치롭다”는 것이 아주 상대적이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치”라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는 물이나 공기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 가벼이 여겨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거나 부패시키거나 오염시키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치가 상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로운 지식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반추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누구이며,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하는 지식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능동적으로 근대화의 길을 찾고 제국주의를 한 경험이 있는 민족과 근대화의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해 국권상실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가진 민족의 “가치로운 지식”은 다를 것이다. 또한, 국토가 크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역사 속에 구현해 온 나라와 역사 위에 덮여썩은 나라, 후기산업사회의 단계에 들어선 나라와 봉건사회, 근대사회, 산업사회가 혼재하는 나라가 찾아야 할 가치로운 지식도 다를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직면하고 있는 물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모습을 들여다 보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못지 않게, 가치를 오염시키거나 부

---

\* 이 논문은 1996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연구비를 지원받아 쓴 것임.

패시키는 것도 “가장 가치로운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에 이르는 길을 막는 요인이 된다. 우리는 오랜동안 “홍익인간”, “효”, “사랑”, “진리”, “아름다움”, “자유”, “자주”, “평등”, “민주주의”, “공화정” 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가나 사업가들은 물론 성직자나 교육자들의 말과 행동에 배어있는 이들 가치들의 모양은 어떠한가? 우리의 사법제도나 교육제도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이들 가치들의 모양은 또한 어떠한가? 우리의 교육제도에 나타나 있는 “평등”의 가치를 예로 들어보자. “평등”의 이름으로 아무리 우수한 학생도 “평준화”된 학교에서 극히 제한된 교과 과정에 입각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평등”의 이름으로 모든 대학 지망자는 “수능능력 시험”이라는 일간이 양성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서의 “평등”의 가치는 창의력과 통찰력을 거세하고 민족을 우민화하는 교육제도에 의해 기계적 가치로 전락해 못쓰게 된 것이다. “평등”의 이념이 가치롭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이든 민족의 삶이든, 삶을 신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평등”의 가치는 민족의 수월성을 옥죄는 형장개비가 되고 말았다.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는 존재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릇된 사용으로 녹슬지 않는 보편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교과서 정책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들로 여겨져 왔던 것들을 오염시키거나 부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 방식: 국제비교연구]의 序章에 지적되어 있는 바, 우리는 “교육활동의 본체를 형성하는 교과서의 내용구성 방식과 외형적 체제(format),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반성하는 작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교육개발원, 1쪽).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책에서마저도 교과서의 내용과 체제를 결정하는 철학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교과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발행제도, 교과서 개발의 주체, 교과서 개발의 절차, 교과서 심의 절차, 교과서 보급방식 등이 어떠한며,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가 어떠한가하는 문제보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철학이 어떠한가하는 것이다. 교육개발원의 [국제비교연구]는 선진국들의 교과서 정책을 비교 검토하면서도 그들의 교과서 정책을 그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철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철학이 없다면 어떠한 정책도, 어떤 제도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그릇된 철학에서 비롯된 정책이나 제도는 그 결실도 그릇된 것일 수밖에 없다. 어찌하여 우리의 교과서 정책 입안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이 간단명료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우리의 교과서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개발원의 [국제비교연구]는 교육의 목표와 교과서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개방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국제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한 나라의 교육이 주력해야 할 점은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실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교과용 도서 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교육적 요청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즉, 한국의 교과용 도서 정책은 경직성과 폐쇄성 면에서 교육의 기본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교육개발원, 11쪽)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른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교육목표가 될 수 있다. “교과용 도서 정책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줄이는 것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교육에 도우며 될 것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자율성”과 어떤 “창의성”이 가치로운가? 정부가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독점하지 않고 교과서 내용의 구성방식이 다채로워지면, 교과서를 오래 쓰게 하고 교과서의 채택방식이 바뀌면,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교과서를 만들기만 하면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절로 길러지는가? 요술의 성은 가시덤불의 황야 저편에 존재하는 것이다. 고급의 자율은 고도의 규율과 훈육과 수양을 필요로 하고, 결코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고급의 창의성은 감각적 쾌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옥의 순례 후에야 얻어지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의 구성방식을 바꾸거나 교과서의 채택방식을 바꿔서 얻을 수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은 저급한 자율성이며, 저급한 창의성이다.

[국제비교연구]에 제시된 교육의 목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좀 더 깊이 숙고해보면 니체가 말하는 “노예의 도덕”에 속한다. 니체에게 “노예의 도덕”이란 삶의 일부에만 의미와 형식과 질서를 주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도덕”이며 철학으로서 우리가 초월해야 할 도덕이며 철학이다(Foster, 86쪽). [국제비교연구]에 제시된 교육의 목표에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바뀌는 지구촌화 현상과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라는 의식이 없다. 이는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정보사회: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변화는 20세기로부터 21세기로 넘어가는 단순한 세기적 변화가 아니다. 이 변화는 문명사적 변화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문명은 산업문명이었다. 농경문명에 뒤이어 나타난 이 산업문명의 도전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역사의 실패자가 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문명은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다.

세계화: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또다른 중요한 특징은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지구는 하나의 지근(至近)의 촌락으로 변모되고 있다. ... 세계화 전략은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에 대응하여 설계된 국가 생존 전략이요 발전전략이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3쪽)

언제까지 우리는 타에 의해 강요된 현실 속에서 허우적 거리며 살아남기만을 바랄 것인가? 우리민족의 삶을 지배해온 신화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의 신화였으며, 삼국시대 이후 우리의 역사는 거의 언제나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다. 임진왜란을 “물리쳤고”, 병자호란을 “당했으며”, 열강들의 제국주의 정책의 “제물이 되었었고”,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력한 “노예의 도덕”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주인의 도덕”이다. 현실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자율과 창의력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교과서 정책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느린 것인가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철학을 개발하며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미국의 교과서 정책을 살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교과서 정책은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지구궤도 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겪게 된다. [5개국의 교육사상과 교육전략]에서 스티븐 츠디(Stephen N. Tchudi)는 이 변화에 대하여 “영어교육의 근대사는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발사와 함께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다(Tchudi, 14쪽). 미국의 국가 정책 입안자들은 인공위성개발에서 소련에게 뒤지게 된 원인을 교육의 실패에서 찾았으며, 즉각 교육과정의 검토에 착수했고, 2년이 지나기도 전에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ce Education Act)을 제정했다(Tchudi, 14쪽). 20년이 넘게 진행된 교육과정의 검토를 거치면서 그들은 먼저 수학과 과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후일 그들이 얻은 보다 생산적인 결론은 “국어교육”, 특히 쓰기교육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었다(Tchudi, 14쪽). 그후 미국 학교의 과학교과는 실험위주의 교과과정으로 개편되었고, 곳곳에 “영어 쓰기교실”이 세워졌으며, 이 때의 교육혁명은 20세기 후반의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현실을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현실을 파헤쳐 질곡을 벗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과서 정책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넘어서려는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교과서 정책의 졸렬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1990년 부시 행정부가 내놓은 “2000년의 미국을 위한 교육전략”(America 2000: An Education Strategy)과 그에 뒤따른 교육개혁 논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과 독일과 함께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국은 80년대 들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교육의 개혁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1983년 미국 교육부는 “위기에 봉착한 국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1990년 부시 행정부는 샌디아 국책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州知事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육의 6대 목표 — 학업 성취도의 향상, 대학 졸업률의 향상, 문제 대처 능력의 향상, 수학과 과학에서의 세계 1위, 평생교육, 폭력없는 학교환경 — 를 담은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교과과정을 개편하기에 이

른다(See. Daniel Tanner, 290쪽 참조). 카미(Constance Kamii), 클라크(Faye B. Clark), 도미니크(Ann Dominick) 등의 교육학자들이 피아제(Jean Piaget)의 “자율성 이론”을 들어 미 행정부의 “교육전략”을 “절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Kamii, 672-77쪽), 국민의 수월성을 지키려는 행정부의 엘리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는 술한 수난과 오랜 치욕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는 우리의 행정부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도 “국가방위교육법”같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 2. 영어 교과서 정책: 국민적 에너지의 소진

우리의 교과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는 끊임없는 연구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피아제가 그의 책 [이해가 곧 창조이다]에서 밝힌 “자율”(autonomy)의 능력은 역사의 상당부분이 타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우리에게는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카미(Constance Kamii), 클라크(Faye B. Clark), 도미니크(Ann Dominick) 등의 해석에 의하면, 피아제의 “자율”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으로서 자기를 다듬고 다스리는 도덕적, 지적 능력이다. 그것은 상벌에 유념함이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진리와 거짓을 가름하는 능력이며, 주어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율의 반대편에 타율(heteronomy)이 있으며, 타율적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된다(Kamii, 673). 그러므로 자율이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며, 자기가 속한 사회의 꼴과 역사를 스스로 만들고 써나가는 능력이다.

자율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여 행할 수 있는 지적, 도덕적 능력이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능력이라면, 그것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자율성을 함양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자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 모순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그룹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기”는 모든 “타”에 대하여 “타”의 위치에 있으므로 “타”의 자율을 존중하지 않거나 “타”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율은 무가치하다. 둘째, 그것이 “평등”, “사랑”, “아름다움”, “참” 등의 다른 가치들과 조화를 이룰때에만 가치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자율의 가치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다른 가치들의 효용을 거부하거나 경시함으로써 무서운 종속과 지배의 결과를 낳는 것을 보아왔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중요한 가치들과 마찬가지로 자율의 가치도 실천되지 않고 선언적 가치로만 남아 있거나 권력이나 금력에 의해 부패되거나 오염될 때 위험한 가치로 변질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우리의 “평준화 정책”에서 “평등”의 가치가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같은 기형의 입시학원을 만들어 냈듯이, 자율의 가치도 그릇 추구되면 통제 불능의 크고 작은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를 야기할 것이다.

자율의 가치가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들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우리의 영어 교과서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또한, 자율가치의 실현은 그 가치의 중요성 못지 않게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우리의 영어 교과서 정책에서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을까? 교과서 정책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우리의 영어 교과서 정책을 살펴보면, 그것은 자율의 가치를 방기하거나 자율의 가치를 부패시키는 한 원흉으로 보아 무리가 아니다. 1992년판 고등학교 교육과정 (I)에 나오는 외국어 교육과정은 외국어 교과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성격

고등학교 외국어 교과서는, 학생들이 외국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고, 국제 이해를 증진시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교과이다. 또, 국제적 외교 관계의 개선에 따른 문물 교류의 확대와 국제화 추세 및 산업, 문화, 학술 등의 발전에 따른 정보의 개방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요구와 필요에 근거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점차 중견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실용성을 중시하여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따라서, 외국어를 단순한 도구와 수단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탐구 정신을 기르게 하여 점차 학술과 직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며,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둔다.(고등학교 교육과정, 307쪽)

### 2. 목표

외국어를 이해하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며, 이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한다.(고등학교 교육과정, 308쪽)

또한, ‘공통영어’, ‘영어 I’, ‘영어 II’, ‘영어독해’, ‘영어회화’ 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공통 영어’의 성격

‘공통 영어’ 과목은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하여 현대 일상 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필수 과목이다. 따라서 일상 생활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쉽고 평이한 영어로 제공되는 자료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 자료를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체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추출하여 구성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310쪽)

## 2. '영어 I'의 성격

'영어 I' 과목은 '공통영어'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여, 현대 일상 영어를 이해하고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도와 주는 과목이다. 그리고 점차 각종 전공 분야의 학술 연구에 기본이 되는 언어 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중급수준의 영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316쪽)

## 3. '영어 II'의 성격

'영어 II' 과목은 '공통영어'와 '영어 I'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며, 점차 다양한 진로와 전공 분야에 따른 과업과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어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과목이다. '영어 II' 과목에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체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며, 영어 과목 중에서 수준이 가장 높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322쪽)

## 4. '영어 독해'의 성격

'영어 독해' 과목은 '공통 영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평이한 현대 일상 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실업계, 기타계 및 필요한 경우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일상 생활과 일반 업무에 관련되는 흥미 있고 유용한 자료를 읽어 교양을 넓히고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여, 점차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다. 그러므로 '영어 독해' 과목의 내용은 '영어 I' 과목의 독해 내용보다는 쉬운 언어 자료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소재로 학습내용을 구성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328쪽)

## 5. '영어 회화' 과목의 성격

'영어 회화' 과목은 중학교 '영어'와 '공통 영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일상 생활과 일반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를 듣고 이해하며, 이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고, 영어 청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신장을 주된 목표로 하는 과목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334쪽)

[교육과정]에 기술된 영어 교과서의 성격 규정을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 정책의 골자는 "학생들의 영어 소통력을 높혀 그들에게 중견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외국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도록 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어 교과서 정책에는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길러줄 어떤 대책도 들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어 교과서 정책에는 "우리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영어가 어째서 우리에게 가치로운 지식인가?", "어떻게 영어를 배우면 우리의 자율성이 신장될 수 있는가?" 등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뇌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어를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전무하며, '누구에게 어떤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아무

런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비슷한 성격의 교과서를 가지고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세월동안 기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쓰고도 필요한 영어 구사능력을 기를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영어 교과서 정책이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영어 지식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와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줄잡아 5,000~10,000시간을 영어 공부를 하는데 바쳐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바치고 우리 국민들이 외국어 공부를 적게 하는 나라의 국민과 경쟁을 한다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현재로서는 영어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중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화도 “말”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은 없다. 말은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밑그림이고, 모든 과학과 예술의 밑그림이며, 모든 제도와 관습의 밑그림이기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영어를 바탕으로 형성된 영어권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권 문화의 형성과 궤적, 그리고 미래의 진행방향을 꿰뚫어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훌륭한 독립 문화를 창조하기는 커녕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영어권 문화가 지배문화이고 힘의 중심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그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바쳐야 하는가와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때까지 학교에서 습득한 영어 지식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영어를 공부하며 써버린 그 많은 시간들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철학부재의 교과서 정책하에서 획일적으로 그릇 기획된 교과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으니 이는 오히려 당연한 결과이다. 영어권 문화를 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시간도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으며, 영어권 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여행에 관련된 영어 지식이 필요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사업을 할 사람에게는 사업과 관련된 영어 지식이 필요하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목회에 필요한 영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수나 외교관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깊고 폭넓은 전문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영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철학부재의 획일적 교과서 정책이 어느 그룹의 필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엄청난 교육의 낭비와 학습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힘있는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자존을 지키고 고급의 자율을 얻기 위해서는 규모있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필수 교과로서의 영어 교육의 낭비를 줄이고 필요 교과로서의 영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생



들로 하여금 필요에 맞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학습량의 정도를 살피어 이수 단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전체 학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 ‘생활영어’, ‘실무영어’, ‘교양영어’, ‘고급영어’ 등의 2단위 영어 선택교과들을 개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에 맞도록 선택하게 하고 다른 교과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 만큼 그들의 자율의 폭은 넓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처럼 기술자원이 필요한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교과를 탄력성있게 운용하지 않는다면 경쟁력 있는 고급의 기술인력 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어를 선택교과로 운용하면서 선택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다면, 무엇보다, 영어 전문인력의 진정한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영어가 필수교과일 때 학생들은 주어진 이수 단위를 주어진 교과서로 강제로 이수해야 하지만, 정작 교과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필요한 지식은 비정상적이고 비체계적인 “과외”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어가 선택교과가 되고 ‘고급영어’ 과목이 필요에 부응해서 개발되면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수준의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영어권 문화의 문화논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그에 능락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배문화로서의 영어권 문화의 문화논리를 규명하고 넘어서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영어 교과서 정책은 어떤가? 현재 교과서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해도 영어 잼뱅이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국익이 침해하게 대립되는 외교나 높은 영어 역량을 요구하는 다른 전문영역에서 일하기에 적절한 인물이 성장할 수 없다. 참고로 1996학년도부터 사용할 2종 교과용도서 ‘공통영어’의 “집필상의 유의점” 한 귀절을 인용해 보자.

라. 내용의 수준과 범위 (3): 어휘는 교육과정 <별표 2> 기본어휘표에 제시된 어휘를 중심으로 1,400 낱말 내의를 사용하되, 빈도수, 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 사용하고 가급적 중학교에서 학습한 것을 반복 사용하도록 한다; (4) 단일 문장의 길이는 가급적 짧게 하고 25개 낱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집필상의 유의점, 171쪽)

위에 제시된 영어학습의 목표는 영어권 국가의 취학전 아동의 영어학습 수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외래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그 문화의 문화논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자존을 지키는 것이라면, 위의 집필지침에 의거해서 집필된 교과서로 영어 공부를 하고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영어 교과서 정책담당자들에게 맡기겠다.

편집광적 국수주의자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부존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며 반면에 우리는 상당히 우수한 인력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자율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적의 상태로 인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깊고 폭넓은 영어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의 개발은 인력개발의 최우선 순위에 속한다. 왜냐하면, 영어는 알고 있으면 교양인이 되는 단순히 하나의 외국어가 아니라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이 들쭉날쭉할 수 있는 치명적인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역사의 법칙을 설명하기에는 긴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연유야 어떻든,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영어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영어를 알지 못하고는 그 힘에 대항할 수 없다. 영어가 국어가 아닌 우리로서는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헤밀톤(Edith Hamilton)이 [그리스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한 말을 되새겨 보자. “詩人만이 悲劇을 쓸 수 있다. 그것은 비극이란 바로 詩의 연금술로 고통이 희열로 바뀐 것이기 때문이다”(Hamilton, 165쪽). 고통을 희열로 바꿀 수 있는 “시의 연금술”이 있다면, 비극은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 세계의 힘이 영어에서 나오고 있다면, 영어를 정복함으로써 세계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영어 교과서 정책수정을 위한 제언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지구촌화 되어 가고 있는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며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 다시 말해 영어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룰 때에만 우리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자율의 능력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자율의 가치를 함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서의 영어 교과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두말할 여지 없이, 영어 교과서 정책은 학생들에게 자율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자율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영어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교과서의 발행제도, 교과서 개발의 주체, 교과서 개발의 절차, 교과서 심의 절차, 교과서 보급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차원의 영어 교과서 개발과 함께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누가 영어 교과서를 심사할 것인가?”, “누가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 교과서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집필자의 확고한 의지가 들어 있지 않다면, 교과서 심사위원이 그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사가 그 철학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올바른 영어 교육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1. 영어 교과서의 내용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일원으

로 참여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참여의 정도와 목적은 대단히 다양할 것이다. 어떤 이는 단지 영어권에서 생산된 제품의 설명서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영어지식만을 원할 것이고, 어떤 이는 여행을 하거나 물건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영어지식을 원할 것이며, 또 어떤 이는 영어권의 나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자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영어권 문화의 본질을 파헤치고 나아가 그 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의 창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른 만큼, 그들이 요구하는 언어기술도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 교과서의 집필자는 먼저 그가 누구를 위해서 교과서를 쓰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며, 그에 맞는 언어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쓰야 할 것이다.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모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어법 등의 기술을 모두 익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또한, 상당히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할 전문가가 될 집단이 우매한 제도에 묶여 교육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더욱 고약한 일이다. 우리의 영어 교과서 정책은, 내용의 면에서, 한 편으로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한 편으로는 고도의 훈련된 영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과서의 집필요령 한 부분을 되돌아 보자.

내용의 선정: (6) 외국에 관한 내용에 편중하지 말고, 우리 나라의 생활, 문화 등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도 적정하게 포함 시킨다; (7)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외국의 생활 및 문물 등에 관한 것을 선정한다. (집필상의 유의점, 168쪽)

단원의 구성 체제: (2-가) 듣기 자료는 실생활에 필요한 쉽고 간결한 담화 위주의 대화체 영어를 주로 하여 학생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짧게 제시하며, 가급적 원어민의 실제 발음을 학생들이 들어볼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배려한다. (집필상의 유의점, 170쪽)

대상은 불특정의 전 학생이고, 기준은 구체성이 없으며,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 교육의 낭비를 줄이면서도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과서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영어 교과서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학습의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참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호주 교육의 강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호주의 교육학자 부머(Garth Boomer)는 "자기 반성적이고 자기 비판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끊임없이 창조해가며 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호주 교육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Boomer, 2쪽), 이는 교과서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술의 발달로 전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되어 버린 오늘의 세계는 하루하루가 어떤 형태의 전쟁상태이다. 무역전쟁, 정보전쟁, 기술전쟁, 이념전쟁에

서 무기를 맞대고 싸우는 화력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형태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하루 한시도 보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절박한 전쟁상황에서 살아남는 길은 知彼知己하는 것이다. “영어 상용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그들의 문화, 관습, 사고 방식 등을 이해하게 하여, 국제적 이해와 안목을 넓힐 수 있는 내용”(집필상의 유의점, 168쪽)의 교과서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배우게 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의 영어 교과서에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결점과 장점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영어권 국민들의 문화, 관습, 사고방식이 들어 있어야 한다. 오직 그 때에만, 학생들은 영어라는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 볼 수 있고, 무한히 소용돌이치며 변화하는 오늘의 세계를 통제하고 모양지을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 3.2. 영어 교과서 집필지침서와 심사자

집필자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과서의 집필지침이 갈피를 잡을 수 없거나, 확실적 사고를 요구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라면, 훌륭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집필지침이 따르는 것이 강제/의무사항인 경우, 집필지침은 교과서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집필지침이 문화와 역사에 대해 광장한 식견과 영어 교육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오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영어 교과서 집필지침은 강제로 따르게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철학도 영어 교육에 관한 포괄적 식견도 엿보이지 않는 수 쪽짜리 집필지침을 놓고 점검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점수를 매겨 교과서 검정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완벽한 집필지침을 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도 미국의 많은 주들처럼 집필지침이 아닌 “교과서의 열개”를 만들어 주는 편이 좋을 것이다. 파(Roger Farr)와 그린(Beth Greene)이 작성한 “각 주의 교과지침 분석”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몇몇 주는 상세한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 이행시키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는 하나의 “모델”, “표격”, 또는 “열개”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미국에서 지침서에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열개’이다. 적어도 열 개 주에서는 이 용어를 지침서의 제목으로나 서론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에 담긴 뜻은 알래스카주의 지침에 잘 기술되어 있는 바, 보편적인 참조틀로서 하나의 모델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테네시주의 지침에는 [교과 개요]는 언어의 여러 기능들을 통합하는 교과구성을 기하면서도 주어진 방법론을 맹종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대강의 목표를 수립할 의도를 담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주 급의 교과 지침이 보다 상세한 지역단위 교과를 만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용어들은 “길잡이”, “표본”, 또는 “바탕” 등이다. ... 언어 과목 교과의 필수 요소들을 표로 제시하고 있는 텍사스주의 지침은 각 학년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골격을 제시해 놓은 “참고용 책자”라고 언급되어 있다. (Roger Farr and Beth Greene, 97~98쪽)

‘얼개’라고 불리는 미국 주의 교과서 집필지침은 최소한의 필수요소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하는 우리의 교과서 집필지침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의 집필지침을 따른 교과서에는 필자의 철학과 이상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행 교과서들이 증명해 보이듯이, 채택된 모든 교과서는 체제나 내용에서 지극히 유사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미국 각 주의 교과서 집필지침은 최소한의 필수요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필자의 철학과 이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따라서 같은 주 내의 교과서라도 체제와 내용이 획기적으로 다를 수 있다. 어느 쪽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르고 키우는 데 바람직한 교과서인가?

교과서 집필지침이 최소한의 필수요소를 제시할 때에는 좋은 교과서를 찾아내기 위하여 심사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 집필지침이 최대한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규정한 요소를 검정하는 채점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최소한을 규정할 때에는 심사자의 재량권이 교과서 심의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좋은 교과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처럼, 검정을 제출한 출판사에 대하여 제작의도에 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훈련시키고 인터뷰를 통해 숙지정도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하게 할 수도 있다(J. Dan Marshall, 119-20쪽). 오랜 경험을 가진 교사나 이론에 밝은 전문가도 일정한 훈련이 없이는 제출된 교과서의 질을 한 눈에 알아보는 힘들 것이므로, 교과서의 내용, 내용의 조직과 전개, 현장수업에의 적정성, 제출된 교재에 대한 언론의 평가, 교육효과에 대한 기대 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심의 전에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교과서 심사의 필수적 과정으로 여겨진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심사대상의 교과서들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언론이나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3.3. 교사양성제도의 개혁

‘교과서의 내용이 어떠한가’의 문제와 더불어, ‘누가 교과서를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도 교과서 정책에 포함시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리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어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다면 그 교과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교사 양성제도의 개혁은 교과서 집필지침의 개혁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교육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물어보자. 그리고, 누가 그 교육을 맡아야 하는지를 물어보자. 지금 우리 행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할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의무를 방기하고 일부를 국공립대학에 그리고 많은 부분을 사립대학에 떠맡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공과정의 훈련은 말

할 것도 없고 도덕과 윤리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한다. 영어 교과와 경우는 특히 그렇다.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특수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영어교사들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영어 자체에 대한 교육도 뒤죽박죽인 채로 교단에 서게 된다. 이들에게서 어떻게 자율이 길러질 수 있는가? 영어 교과서를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영어 교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훌륭한 전통은 가르치는 선생과 배우는 학생 사이에 교감을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면서 보전된다. 그리고 훌륭한 전통이 보전되면서 자존심이 생겨나고, 자존심을 가지고 외국문화를 받아들일 때에만 자율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함양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치러온 전통적인 儀式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과 영어권 국가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영어의 어법이 어떠한 지를 모르는 교사들에게서 아무리 훌륭한 교과서를 쓴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도덕적 차원에서 본 교직]의 열번째 장에서 시로트닉(Kenneth A. Sirotnik)은 “교직에는 다섯가지 윤리적 바탕이 있는 바, ‘지식의 탐구’, ‘자신감’, ‘자유정신’, ‘복지정신’, ‘정의감’ 등이 그것이다”라고 주장했다(Sirotnik, xvii쪽). 공교육의 재건을 위해 교과서 정책의 개혁과 함께 시로트닉의 윤리적 5대 덕목을 갖춘 교사, 특히 영어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사양성제도의 확립을 제안한다. 독버섯처럼 성한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쓰러져가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교사들 — 특히, 영어교사들 — 에 대한 과감한 재교육을 실시할 것도 제안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교육개발원. 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 방식: 국제비교연구. 1995. 1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I. 1992년.  
 교육부. 집필상의 유의점(고등학교). 1993. 2. 11.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 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5. 31.  
 “America 2000: An Education Strateg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1, 62-66.  
 Boomer, Garth. “Australia” in Stephen N. Tchudi, and et als ed., *Ideas and Strategies from Five Countries*. Upper Montclair, NJ: Boynton/Cook Publishers, 1986.  
 Farr, Roger Farr and Beth Greene. (1992) “State-Level Curriculum Guidelines: AN ANALYSIS” in *English/Language Arts Curriculum Resource Handbook: A Practical Guide for K-12 English/Language Arts*

- Curriculum*, Millwood, NY: Kraus International Publication, 97-98.
- Foster Jr. and John Burt (1981) *Heirs To Dionysu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Hamilton, Edith (1930) *The Greek Way*, New York: A Mentor Book.
- Kamii, Constance, Faye B. Clark, and Ann Dominick (1994) 'The Six National Goals: A Road to Disppoinment,' in *Phi Delta Kappan*: 288-97.
- Marshall, J. Dan 'State-Level Textbook Selection Reform: Toward the Recognition of Fundamental Control' in eds., Philip G. Ahback at als. *Textbooks in American Society: Politics, Ploicy, and Pedagogy*, Albany: State U. of New York Press, 1991. An earlier version of this essay appeared in *The Capstone Journal of Education*: 8, no. 2, 1988, 119-20.
- Sirotnik, Kenneth A. (1986) 'Society, Schooling, Teaching, and Preparing to Teach,' in *The Moral Dimensions of Teach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Tanner, Daniel (1994) 'A Nation 'truly' at Risk' in *Phi Delta Kappan*: 672-77.
- Tchudi, Stephen N. and et als ed. (1986) *Ideas and Strategies from Five Countries*, Upper Montclair, NJ: Boynton/Cook Publishers.

## ABSTRACT

# Problems with High School English Textbook Policy

Jung-Hyun Shin

Concerning education, "What knowledge is of most worth" and "How to teach it" are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t is regrettable, however, that our curriculum workers haven't taken much pain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fact is that they are unawarely participating in making wise people foolish. G. C. Lichtenberg's aphorism that "A clever child brought up with a foolish one can itself become foolish" is true of our present textbook policy.

No research papers concerned with our recent educational reform movement

show their deep concern with these classic educational questions. Even “Textbook Organizational Skills in Other Countries”(“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 방식: 국제비교연구”), the foremost study on curriculum reform in Korea, does not say of what knowledge should be most valuable to us here and now. It tells nothing but some organizing principles of textbook; it tells nothing about the philosophy on which its content should be based.

The “Guideline” for the highschool English textbook writing is a prime example of the serious lack of philosophy in Korean textbook policy. It is full of many nonsensical restrictions such as the limitation of the number of the usable words in the textbook, the kind of situations, the allowed idioms and phrases, and the forth. However, it doesn’t say anything about what kind of English knowledge we need to survive in this globalized world. How can our ambassadors perform their task perfectly with his 3,000 English vocabulary?

In our present situation, the most important knowledge is the one capable of increasing autonomy in a wide range of decisions, not just inside the high school classroom but far beyond. And it is impossible to deny that English knowledge is closely related to reaching such autonomy. The problem is how to help students to reach autonomy in every sphere of our lives through English. First of all, we have to decide what kind of English we will teach students who vary in their wishes and objectives and produce various kinds of textbooks which can satisfy their wishes and objectives. Secondly, we have to re-establish educational systems on which our English education can be functioned well. And finally, English teachers should be trained hard against the difficult task of teaching so vast knowledge of English.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51-742